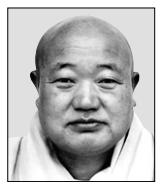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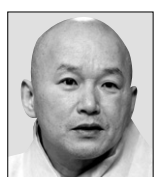
신라불교문화영산재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12일 불국사 범영루 앞에서 신라불교 문화 영산대제 및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전국 금강경 강승대회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해거 스님은 10월 13일 제2회 전국금강경 강승대회를 개최한다.



개산대제 범오식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0월 26일 오전 10시 범어사 대웅전에서 개산대제 범오식을 봉행한다.



숲속힐링 프로그램
보은 범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10월 21일부터 매일 셋째주 일요일 가족과 연인 등이 함께 명상하는 '숲속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손주와 소통해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 스님은 10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손주와 소통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법향나눔 영산재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법향나눔 국화영산재를 봉행한다.



한마음선원 수계법회
한마음선원 주지 해원 스님은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안양 본원 5층 대법당에서 제24회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초기면접상담기법 강연
불교상담개발원장 담교 스님은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초기면접상담기법' 강연을 개최한다.



자비도량참법 천도법회
경주 범장사 주지 철우스님은 10월 6일부터 2015년 7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자비도량참법으로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한다.



명상 & 경역강좌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2일~11월 26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문화공간 숲도에서 '명상 & 경역강좌'를 진행한다.

“전등사, 신행 사찰로 변모시킬 것”

전등사 주지 범우 스님

“강화 전등사는 인천과 수도권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지만, 관광사찰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제는 전등사가 신행 중심의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 강화 전등사 주지에 임명된 범우 스님(사진)이 내놓은 전등사의 발전 방안이다. 관광사찰로서 전등사가 아니라 불교세가 열약한 인천 지역 불교를 위해 신행과 수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강화 전등사는 오는 10월 설법전 낙성 및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에 맞춰 '금강경 3년 독송기도법회'도 함께 입재하게 된다.

“3년 결사로 진행되는 금강경 독송 기도법회는 경전 독송과 강의가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경전에 기록된 수행법을 실천하는 새로운 신행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년 결사를 마치면 <금강경> 실법을 듣고 깨달은 1250비구와 같이 1250명의 금강행자를 배출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금강경 3년 독송결사’는 매일 한 차례 점검을 위한 법회와 강의 외에도 일반 신도들이 일상 생활에서 경전을 수지 독송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제 신행할



23일 금강경 독송기도 입재

3년 결사... 설법전 낙성법회

30대 위한 템플스테이도 진행

동여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약 5분 간 독송할 수 있는 <금강경 약반>을 제작해 기도 동참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불자들은 신행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한국불교에 미

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 정법에 기대어 신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지만, 3년간 열심히 하다보면 길은 보일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등사는 일반인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세대별 템플스테이 ‘어깨동무’다. 11월부터 매일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박 3일간 세대별로 진행되는 ‘어깨동무’는 기존 1박 2일의 짧은 일정의 템플스테이에 아쉬움을 느낀 참가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현대는 삶의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호 소통과 이해가 부족한 시대에 같은 세대부터라도 토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불교 체험이외에도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협동 공양과 대화마당 등 서로 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처음 시작하는 11월은 30대가 대상이며, 12월은 20대, 내년 1월은 40대 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장경사 승영사찰 옛 모습 찾기



남한산성 장경사(주지 경우)가 10월 4일 설선당 상량식을 열고 승영(僧營)사찰 복원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설선당은 7억2천여 만원을 들여 60평 규모 전통 목조 맞배 양식으로 건립되는 첫 승영공간이다.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가 6억원을 지원하고 장경사가 자부담 1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장경사는 일제강점기와 정화 시기를 지나면서 도량이 대폭으로 축소돼 대웅전과 산신각, 요사 등으로 이뤄진 조그만 사찰로 남아 있다.

이날 상량식과 함께 10월 13일 의승군 추모 남한산성 걷기대회와 별마 숲속 음악회, 16일 수륙무차대법회 등으로 구성되는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의 막이 올랐다.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은 “장경사의 옛 모습 복원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원력으로 설선당 건립불사가 원만히 진행돼 상량식을 맞게 됐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학명 스님, 동국대에 1000만 원 기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되기를 기원합니다.”

3억원을 넘는 금액을 동국대에 기부해 온 성남 성불사 주지 학명(學明)스님이 또 다시 동국대에 제2건학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명 스님은 9월 25일 동국대가 기부자들을 위해 마련한 연극 <아버지> 공연을 앞두고 김희옥 총장에게 제2건학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이기도 한 학명 스님이 동국대에 기부해 온 기금은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벽담장학, 교지매입기

금, 교육연구환경 개선기금 등으로 총 3억원이 넘는다.

동국대는 지난 2010년 스님의 이같은 나눔정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해 동국대 문화관에 스님의 법명을 딴 ‘학명세미나실’을 개원하기도 했다.

학명 스님은 이날 “불교계 스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국대 인재발수에 동참한다면 대학 발전과 함께 불교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옥 총장은 “동국 구성원 모두가 학교 발전을 위해 더욱 진력해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덕현 기자



학명 스님(오른쪽)이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화순 도원사 청소년 장학금 수여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전남 화순의 도원사(주지 진철)는 지난 10월 1일 도원사 특설무대에서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돕기 및 개원 6주년 기념 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음악회에서 도원사 주지 진철 스님은 지역내에서 힘든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 가장 8가구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사는 정암 스님(선각종 총무원장), 진철스님, 홍의식 화순군수, 오방록 화순군의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 기념식, 신도 노래자랑, 초

청가수 공연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진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가정은 힘들지만 항상 밝게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희망과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정암 스님도 격려사에서 “산속의 사찰이 지역민들과 늘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개원 6주년을 맞이하는 도원사는 지난 2007년 창건한 후 매년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원사 주지 진철 스님(오른쪽)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주교도소 재소자에 송편 전달



임진년 추석 한가위를 앞둔 지난 9월 28일 전주교도소(소장 김준겸) 불교교정위원회는 재소자들을 위해 1400명분의 송편 도시락을 전달했다.

조동철 전북지사장

포항사암聯, 종교편향 감시

포항사암연합회는 9월 27일 포항 문수사에서 20여명의 스님 및 재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성서화대회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포항사암연합회장 효용 스님은 인사말에서 “기독교 행사인 성서화대회에 포항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공무원의 종교 중립에 어긋나며 우리는 포항시의 이러한 자세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항사암연합회는 대책회의 결과 범불교종교편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웹블랭위 및 공직자의 종교편향 등을 감시하기로 했다.

한편 범불교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등대사 주지 해성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담암 주지 범륜 스님 길상사 주지 해광 스님 원해사주지 대광 스님 정국사주지 진문 스님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팔공총림 설치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울장정신과 종단징계제도의 문제점'
1. 기조강연: 바람직한 종교지도자 선출방안에 대하여 (정종섭 서울대 법대교수)
2. 주제발표
1) 제1주제: 울장정신과 원융화합 종단구현의 선결과제 - 조계종 교수이사리(월정사 교무국장 자현스님)
2) 제2주제: 울장에 근거한 종헌종법상 징계제도의 문제점 비교고찰 - 동방대학원대학교 차차석 교수
3) 제3주제: 울장의 근본이념에 입각한 조계종 청규제정의 방향 - 동국대 HK연구교수 이자량 박사
■ 일 시: 불기 2556(2012)년 10월 22일(월) 오후 2시 - 5시 (3시간)
■ 장 소: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 문 의: 전화 053)982-0101. 홈페이지 www.donghwasana.net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2년 10월 중
◆개강일시: 2012년 10월 개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을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